

“지친 마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남양주서 한의원 운영하며 지역민에 인술 펼치는 성덕 스님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다. 병원에서는 흔히 몸의 병만 치료한다. 한 번 상상해보자, 지친 마음까지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떨까. 돈 없는 사람도 막대하지 않고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이 곳곳에 있다면 얼마나 훈훈할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마을에 이름난 한 의원이 하나 있다. 한의원이나 당연히 한 방으로 병을 잘 고쳐 유명할 것이다. 여기에 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 이 병원 원장 한의사가 '스님'이라는 사실과 이 한의원은 궁핍한 사람에게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6월 3일 남양주 '삼의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덕 스님을 찾았다. 병원도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다. 아무리 스님이 운영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돈 받습니다.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몇 번 인터뷰를 고사한 스님이 말했다.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조사하겠다는 스님.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보시' 이력을 상세히 밝히기는 꺼려하는 듯 했다.

그럼에도 스님 주위에서 살펴본 이들은 스님이 어떻게 복지행을 실천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의 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스님을 대신해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이홍표 이사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침술 봉사 해주신지는 벌써 30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한의사 성덕 스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침술 봉사를 하는 모습.

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에는 몽골 고려사에서 4박 5일 동안 수백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며 “스님은 항상 대중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 밝혔다.

스님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에는 서울 금강선원 2층에서 침술봉사를 펼치고 있다. 정해진 일정은 이 정도지만 스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스님은 남양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마을 의료봉사는 수시로 나가고 조그만 지방 사찰에도 가끔 찾아가 의료봉사를 행한다.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직접 삼의한의원에 찾아와도 스님은 기꺼이 맞아들인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의원 2층

에 방사까지 마련한 스님이다. 스님은 “편하게 치료받고 가시라고 마련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덧붙혔다.

“혹 주위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세요. 그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병원에 찾지 못한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어김없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복지행이 소중한 것은 굳이 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부담 없이 병을 고치며 따뜻한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스님이 남양주로 내려온 것은 3년 전쯤이다. 약 35년 동안 서울 제기동에서 3대를 이어 한의원을 운영해오다(스님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한의사였다) 모두 버리고 ‘사찰 주지’ 소임에 더 매진하고자 남양주로 내려왔다. 그러나 스님의 의술과 보시행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의원을 다시 열어달라 계속 해서 청한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결국 다시 한의원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삼의한의원에서 매일 오후 1시~7시 진료한다. 오전 시간에는 스님 본연의 업무, 즉 사찰 업무를 본다. 삼의한의원의 바로 옆에 있는 지혜정사가 스님의 사찰이다.

스님이 한의사라는 사실은 여간 특이한 일이 아니다. ‘한의학’ 자체가 동양의 학이다 보니, 불교사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한의사가 불교에 심취한 경우는 있지만 말이다.

“스님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한의학이라는 전문 영역을 갖고 있으니 포교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 참 좋거든요.”

소리 없는 봉사가 때로는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 요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귀히 여긴다. 그리고 세상이 어둡든 소리 없이 일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성취감이나 보람 이런 감정도 없어요. 그저 내 의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것이죠. 모든 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저 그렇게 살 겁니다.”

남양주/글·사진-김강진 기자



“이론·실무 겸비한 복지인 될 것”

복지현장에서는 흔히 현장과 이론 모두 갖추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이론과 현장이 적절히 맞아떨어지면 좋으리.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선 김민정 부장)은 그런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해 불교사회복지의 터전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복지인이다. 김 부장은 어떻게 이론과 실전을 병행하고 있을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민정 부장

김 부장이 불교사회복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4년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송과정과견원봉사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그때 불자라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불교 쪽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학교 선배 소개로 각원 스님과 인연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적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동을 거듭하는데 김 부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명 불교사회복지 안에서 무엇인가 봤기 때문일 것.

“입사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었지요. 연꽃마을 법안단체에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김 부장은 지난해까지 안산대학교 경영대학, 2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

연꽃마을과 인연 불교사회복지 첫 발

대학 강단서 사회복지학 강의 맡기도

를 맡은 바 있다. 꿈을 이룬 것이다. 복지관 부장이라는 자리가 녹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시 그에게 가장 힘이 된 것은 스님들의 ‘칭찬’이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회복지사였던 그에게 ‘잘 한다’는 칭찬 한마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그도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기 위해 애쓴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김 부장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와 복지관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 복지관에서 이론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김 부장이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이다.

김부장의 ‘복지 화두’는 단연 불교사회복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교사회복지가 가진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한다. “불교의 ‘인연’은 사람을 끈끈하게 이



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불자들이 끈끈하게, 그러나 조용조용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불자 봉사자들은 보이지 않게 노력하세요. 그래서 항상 배운답니다.”

요즘 그는 ‘안산’이라는 지역사회복지와 불교를 어

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도 고민한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복

지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합니다. 자비 실천을 통한 맑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기, 그것이 저희의 사명인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관장 스님과 자비를 실천 할 수 있는 모습과 맑고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를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삼고 늘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에게서 ‘복지의 마음’을 배웠다는 김 부장. 앞으로는 사회복지 현장, 이론에서 불교사회복지정신까지 더한 깊은 마음의 사회복지를 행하겠다고 다짐한다.

“올바른 사회복지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하는 복지인이 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창문 밖 세상이 보고싶어요”

다발성경화증 앓는 이달의 환우 송진희씨



송진희(26·사진)씨는 10년째 창문 밖 보고 있다. 병으로 시력을 잃은 지 오래지만 창문 너머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송씨 가슴에 늘 자리 잡고 있다.

송씨가 처음 다발성경화증이라는 낯선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99년 2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였다. 한 번 발병된 병은 악화일로로 나아가 시력까지 앓아갔다. 학교생활도, 검정고시도 치지 못했다. 혼자 힘

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다발성 경화증은 희귀난치성질환의 하나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이다. 이 병의 특징인 감각 및 운동마비·언어장애·시력 장애 등을 송씨는 그대로 겪고 있다.

투병을 시작하자 10년.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잠깐 병세가 좋아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병은 증상이 악화되고 완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항암치료의 예후가 좋아 혼자 있을 수도 있게 됐다. 송씨는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마페라 항암제’를 사용하던 경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 들었다. 하지만 5회 투여에 1100만원이 발생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치료를 주저하고 있다. 그동안 송씨의 치료에 들어간 치료비만 1억 6천 만원. 송씨의 부모님과 오빠는 신용불량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창문 밖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그날까지, 송씨는 견뎌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김강진 기자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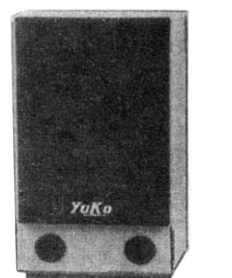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חו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오시는 길 ▷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3-33 태창빌딩 1층